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59
2022.11.13.

오늘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_ 이사야 6:8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3 | 시카고장로성가단 | 8 | 목사안수 소감 / 어와나 | 10 | 십자말씀이 |
| 4-7 | 국내선교위원회 | 9 | 교사일기 / 겨자씨이야기 | 11 | 교회사용설명서 |



이제 그 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큰 것을 시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해외로 나가 선교사가 되거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사이에서도, 회사의 키보드 사이에서도, 작업장의 도구들 사이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시작합니다.

함글함글

시카고장로성가단과 함께하는
특별찬양예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은 그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풍성히 하며,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회중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돕는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찬양은 제2의 설교”라고 했다던가.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높이는 예배자이며, 찬양하는 중에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 평강과 기쁨을 얻는다.

지난 10월 19일 수요일예배는 미주 시카고한인교회연합회 소속 ‘시카고장로성가단’과 함께 하는 특별찬양예배로 올려졌다. 그간 찬양을 통해 미국 시카고 교계 및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구제와 선교를 충실히 사역하던 시카고장로성가단은 1998년 창단되어 20년 넘는 동안 시카고 지역에서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해 왔으며, 뉴욕 및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장로성가단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고국을 방문하여 순회찬양선교를 펼쳐왔다.

이번에 제4차 모국방문순회공연을 통해 장애우 단체 및 교도소 등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들을 찾아가 찬양으로 위로하고 국내 일반 교회와의 교류 강화를 포함하여 하나님 영광을 노래했다. 시카고장로성가단은 그 일환으로 대형교회에 속하는 우리 주님의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이날 시카고장로성가단은 ‘회복 그리고 부흥,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1부(‘회복 - 주님의 능력으로’)에서는 ‘능하신 주의 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을 영원히’ 등 네 곡을, 그리고 2부(‘부흥 - 주님의 은혜로’)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 ‘주의 은혜라’, ‘우릴 사용하소서’ 등 네 곡을 연주하였으며 앵콜 곡으로 ‘내 주 되신 주를’ 및 ‘Marchin’ with the Saints’를 찬양함으로써 특별찬양예배를 마쳤다.

특히, ‘주의 은혜라’찬양 순서에서는 시카고장로성가단 구성원 30여 명이 온 마음 다해 부르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함이 없는 사랑!”가사 자막과 함께 그들의 지난 삶의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비춰져 더욱 진한 울림이 있었다.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믿으며 강건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다. 성도님들 반응도 다양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힐링되어 감사하다.” “울컥했다.” “우리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등등

3편은 시카고장로성가단의 단장인 서정송 장로가 제4차 고국순회찬양선교를 마치며 그간의 일정과 함께 넘치도록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뜨거운 교제에 감사하는 간증을 직접 작성한 글이다.

최병욱 안수집사



시카고장로성가단과 함께하는
특별찬양예배

코로나 창궐 중 주께 영광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평균 연령 75세인 시카고장로성가단 일행 50여 명이 태평양 건너 한국까지 날아가 10박11일 동안 쉴 틈 없이 순회찬양을 하겠노라는 계획은 어찌 보면 황당하고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여 전부터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동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수히 체험하면서 주저앉기 일보 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비량으로 찬양 선교하는 저희로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직항 항공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로스앤젤레스(LA)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는 일이었는데, 두세 달 동안 풀리지 않던 숙제를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여행사 대표 김희선 집사님의 증언) 하나님께서 단숨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던 탑승 48시간 전의 코로나 검사와 입국 24시간 이내의 감칠 맛 나는 콧구멍 찌릿의 족쇄마저도 출발 3일 전에 풀어주셨습니다. 오리무중 속에 한참 동안 헤매이던 우리가 자유의 몸과 진리의 영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글을 쓰기 시작한 2022년 10월 23일 주일, 전북 완주 작은샘골공동체에 고국 순회찬양 연주의 마지막 날이 짙은 안개 속에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행은 앞서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7시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 LA를 경유하여 21시간이 지난,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였습니다. 예약된 두 대의 우등버스에 나누어 타고 경기도 여주 소재 세계십자가선교회 생명의교회(안일권 목사님)에 밤 10시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고, 그 이후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찬양하며 달려왔습니다.

고국에서 찬양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시카고의 한 밤중이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과 고국에서의 빡빡한 일정(마지막 표 참조)으로 적잖이 염려했던 건강을 잘 지켜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과연 백전노장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제하며 집중해서 최고의 화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하얀 뭉게구름으로 황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찬양자와 회중 모두 하나 되어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

리 마음 속 끊임없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찬양하며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긴 행렬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잠실 주님의교회에서의 찬양연주에는 2천여 석 대강당이 거의 다 메워 보였을 정도로, 코로나 이후 수요일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성원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신 대성황이었습니다. 두 달 전 저희 부부의 사전 답사 시부터 연주회가 끝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족한 저희 시카고장로성가단의 이번 찬양연주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주님의교회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한편 익산 사랑의동산교회에서 개최된 익산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우정 출연한 피날레 찬양도 성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 시카고장로합창단과 형제 합창단인 익산장로합창단(단장 김기원 장로님) 단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와 포옹을 전합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여주 세계십자가선교회 6박, 두레수도원 1박, 완주 작은샘골공동체 3박 등 열하루 일정을 모두 끝내고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향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좌우로 펼쳐지는 조국 강산의 풍경에 가슴이 훈훈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웁니다. 우리 이민 세대가 고국을 떠나올 때와는 완전 다른 세상이 된,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조국을 떠난 지 30, 40, 50년. 그 험한 시카고에서 우리는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을 견디며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고 조국을 그리며 기도하며 이민자의 삶을 일구어 왔습니다.

해 저무는 들녘에 백발 흘날리며 천성 바라보는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찬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함이 없는 사랑!”간증과 기도와 소원이 녹아 있는 찬양으로 선교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겠습니다.

버려지지만도 못한 무익한 종들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귀한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께, 50여 일행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제4차 고국순회찬양 선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서정송 장로 / 시카고장로성가단 단장

시카고장로성가단의 고국 순회찬양 일정 :

- 10.15(토) 동두천 두레마을 방문. 김진홍 목사님과 산행 및 환담 후 두레수도원에서 1박
- 10.16(주일) (오전) 신광두레교회(최동욱 목사님) 주일예배 찬양
- 10.16(주일) (오후) 정릉장로교회(박은호 목사님)
- 80주년기념 추수감사 주민초청 음악회 특별출연
- 10.17(월) 서울 동부구치소(김명식 소장님) 찬양예배
- 10.18(화) 강원도 옥계중앙교회(정철화 목사님) 주선 - 멘토선교찬양팀(유한선 단장님)과 협연
- 10.19(수) 잠실 주님의교회(김화수 담임목사님) 수요일예배 찬양연주
- 10.20(목) 여주 소망교도소(권기훈 소장님) 찬양예배
- 10.21(금) (오전) 청주 에덴원(오장연 원장님) - 장애우들과 찬양
- 10.21(금) (저녁) 전주 안디옥교회(오성준 목사님) 철야기도회 찬양
- 10.22(토) 완주 작은샘골공동체(김삼수 목사님) - '시카고장로성가단 초청 하늘뜨락 음악회' (전북 지역 장애우 초청 오찬 제공)
- 10.23(주일) 익산 사랑의동산교회(임재규 담임목사님)
- '익산장로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우정 출연



국내선교위원회
사역 소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국내선교위원회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이후 한국교회는 세계2위의 해외선교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준(2021년)으로 비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80% 정도라고 합니다(천주교 11%, 불교 17%, 기타종교 2%, 무교 50%).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내 복음화를 위한 지속적인 선교사역을 열정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2022년 주님의교회 국내선교위원회는 군·경교회 (10곳), 농·어촌교회(노회지정 30곳, 교회지정 10곳), 도시교회(9곳), 형제·협력교회(8곳), 다문화교회(곤지암비전교회), 기관교회(9곳)으로 총 77곳의 국내선교 사역을 지원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교회 국내선교위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고자, 지금까지의 재정지원과 위원회 내부 인력만으로 이루어진 방문을 넘어서, 주님의교회 교우와 각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영적 교류로 확대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교구의 겨자씨 모임, 유유청청, 그리고 각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계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님의교회 국내선교위원회가 지원하는 기관 및 교회 방문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과 가정을 초청하여 함께 방문함으로 성도님들의 관심과 교류를 피력하고, 함께 국내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기와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내선교위원회의 각 부서 활동소개 |

국내선교지원부

(부장 : 이성호 안수집사 010.2000.0880)

- 1)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월례회의 개최
- 2) 국내선교 발전 세미나 개최
- 3) 부서별 업무 이해와 협업을 통한 사역의 극대화
- 4) 신규 지원시설, 교회 방문 지원 등



▲ 회의하는 모습 ▶ 광암교회 방문
▼ 광야교회 방문 ▼ 곤지암비전교회 방문



군경선교부

(부장 : 복향수 안수집사 010.5071.4411)

군·경선교부에서는 군부대 훈련병 세례식 지원과 군 교회, 관내경찰서 후원, 어머니 기도회, 성탄선물 지원으로 4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1) 전방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 기간장병 대상으로(년6~8개부대) 연 1000~1500명 정도 세례식 후원(성경책, 선물지원등)
- 2) 군·경 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개최(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제1집회에서 군·경자녀를 둔 부모 / 희망자(10~20명) 참가)
- 3) 군 대대급(민간목사님 사역)부대 / 송파경찰서 / 군선교연합회에 대하여 매월(15만원) 선교 후원으로 장병위문
- 4) 성탄절 선물을 당해 세례지원부대별(4~5명) 추천 및 전도대상자, 교회 입대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단체사진



군경선교부 어머니 기도회



장병위문선물 준비



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농어촌선교부

(부장 : 천정희 권사 010.7584.4382, 총무 : 구태호 안수집사)

농·어촌 지역의 교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코로나 사태와 여러 문제로 현장의 사역은 더욱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이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 1) 담양 광암교회(고점남 전도사):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교육공무원이셨던 사모님이 신학을 하시어, 미신과 유교적 풍습으로 폐쇄적인 마을 어른들의 방해 등을 헤치며 어려운 교회를 맡아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의사로 담양으로 내려와 교회를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 2) 남원 입암성은교회(박소명 전도사): 부친이신 박한기 목사님이 암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도 목회활동을 지속하여 교회와 마을에 큰 울림을 주신 교회로 신대원생이었던 박전도사가 전교인의 추대로 목회를 이어가고, 돌아가신 박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 3) 남해 물댄동산교회(황수민 목사): 황수민 목사님께서서는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시다 남해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바닷가 쓰러진 폐가를 빌려 수리하여 개척하시고, 특유의 비법으로 도라지청을 만드셔서 환우들을 돌보십니다. 젊은이 사역과 어려운 동네 주민과 이웃의 상담 목회로 현장을 지키십니다.
- 4) 거제도 해금강교회(이종진 목사): 해금강 교회는 주황색 지붕 '그냥 감사해요'란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북쪽 언덕 비탈이지만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관광객과 순례자의 발길이 많은 곳으로 수가성 여인의 벽화가 순례자의 교회 옆 길가에 놓아두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5) 거창 생수복지교회(최장수 목사): 영호남과 충청권을 오가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한 것을 장로님이셨던 최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고, 집을 팔고, 자녀들의 도움과 대출로 현 위치에 교회당을 지으셨습니다.
- 6) 구미 명곡교회(양동훈 목사): 자녀가 9명으로 유명한 목사님(6명 입양)은 농촌교회의 미래를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희망을 청년 사역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목회자 입양선교회와 농촌 작은교회 살리기 선교회를 섬기시며 직접 양봉과 고추농사를 지으십니다.
- 7) 상주 지사교회(백영주 목사): 상주시 지사면에 위치한 지사교회는 현재 암투병을 하시며, 어머니를 모시고 온 동네 주민을 섬기시는 정말 대단한 여자 목사님이 섬기시는 곳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중점적으로 다음세대 사역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 8) 강화교동 순례자의교회(김한운 목사): 잠시 도시를 떠나 누군가를 만나 평안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커피 한 잔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축을 말씀에 따라서 지으셨고, 이외에도 상담, 성경식물 모종사업, 스토리텔링사업 역사강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거제도 해금강교회



상주 지사교회



남해 물댄동산교회



강화교동 순례자의교회

도시교회선교부

(부장 : 황석진 집사 010.3669.6368)

도시교회선교부는 서울 및 서울 근교 도시에 소재한 미자립 교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 선교하는 교회 중에는 탈북민 목사님이 동일한 처지에서 대한민국에 정착 중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며 모임을 갖는 북부 중앙교회(서울 도봉 소재), 대한민국에 일하러 입국하여 복음을 듣게 된 터키인을 대상으로 모임을 갖는 안디옥열방교회(의정부 소재), 대학로에서 가난한 예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모임을 갖고 선교하는 아가페드림교회(서울 대학로 소재) 등의 특수목회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새로 개척하여 여러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젊은 목회자가 사역하는 정감교회(시흥소재), 수암교회(의정부 소재), 새샘교회(서울 광진 소재), 함께가는교회(서울 강동소재), 사랑의빛교회(서울 도봉소재) 및 새청교회(포천 소재) 등이 있습니다.



북부중앙교회



아가페드림교회



새청교회



▲▶안디옥 열방교회 _ 코로나 이전 애찬관에서 기념사진



안디옥 열방교회 _ 부활절 교회 성찬식(2022)



안디옥 열방교회 _ 교회 행사

협력교회선교부

(부장 : 고경임 권사 010.9900.3485)

협력교회선교부는 주님의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분들이 개척한 교회나 기관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의 지역에 파송되어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세우시는 사역 위에 친정엄마와도 같은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는 2개의 형제교회(광야의교회, 길가에교회), 그리고 6개의 협력교회(삼성교회, 하늘꿈교회, 세린교회, 늘푸른교회, 송우제일교회, 예제교회)가 있습니다.



▲ 파주삼성교회

▼ 광야의교회



▲ 송우제일교회

▼ 동해하늘꿈교회



다문화선교부

(부장 : 장동현 집사 010.9046.8752)

다문화선교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이주민 다문화 선교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곤지암 비전교회를 섬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비전교회 사역은 한국,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인도, 중국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1) ‘다문화예배’를 기초로, 매년 설날, 추석, 여름 휴가철에 2) ‘수련회’를 통해 이주민 외국인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9년부터 시작된 3) ‘아시아리폼스 신학교(ARTI)’사역을 통해 현재까지 현재까지 16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50명의 신학생이 수업중에 있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간 졸업생이 캄보디아에서 4) ‘캄보디아 프놈펜 비전센터’를 개척하고 자국민 복음전파와 예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리폼스신학교(ARTI) 수업모습



곤지암비전교회 ARTI신학교 졸업식



곤지암비전교회 새가족초청예배



캄보디아 프놈펜 비전센터

기관선교부

(부장 : 송재승 안수집사 010.4617.7641)

기관선교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장19-20절)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선교기관들을 후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 계층(사회적/경제적 소외자, 난민, 소수외국인 등) 선교단체와 미전도국 국내 이주민 선교단체 및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기독교관련 단체 등을 우선 발굴하여 양적, 질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도와 재정 및 봉사 등으로 다양하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9개 기관은 아랍계 난민지원을 위한 ‘이태원 공동체(서울)’, 중국유학생들을 선교하는 ‘건대중국인교회(서울)’, 미전도국 국내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캔미션선교회(대구)’, ‘다누리센터(대전)’, ‘다문화가정지원센터(김포)’ 그리고 소외여성들을 위한 ‘이웃사랑선교회(서울)’, 지하철 노숙인들을 위한 ‘거리의 천사들(서울)’, 장애인들을 위한 ‘에벤에셀장애인봉사단(대전)’,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서울)’ 등이 있습니다.

늘 더 자주 선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겪으면서 선교적 실천을 해 가고자 여러 가지 애들을 써 가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봉사 가능하신 주중 또는 야간이나 주말 시간에 맞추어 성경 이야기와 함께 서로 공감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봉사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은혜롭고 보람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을 섬김의 귀한 시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사역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귀한 사역에 동참을 희망하시는 교우님들을 모든 기관선교부 부원님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 이태원 공동체 봉사

▼ 거리of 천사들 봉사



▲ 기관선교부원 간담회

▼ 김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봉사



평남노회
목사안수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목회자’로

할렐루야! 주님의교회에서 소그룹분과를 섬기고 있는 장성식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기도해주시고 안수받게 해주신 주님의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적 저는 교회에서 자라 교회에서 컸습니다. 교회가 있었던 상가 곳곳을 누비며 교회를 놀이터 삼았던... 그냥저냥 교회가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은 뚜렷이 생각을 못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이 길로 인도해주셨음을 느끼곤 합니다. 제 신앙과 삶에 영향을 주신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부터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솔직하고 그분과 매일 소통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이제 성도들과 나누며 목회하고 싶습니다. 안수받기 직전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많이 고민하며 씨름했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제 행복을 나누는 목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 이것이 행복이라오.”이 시대에 부름을 받아 막중한 책임을 지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식 목사 / 소그룹분과

청소년
어와나 저니

어와나 저니, 아시아공원에서 야외 그림전시회 개최

2022년 10월 30일 잠실 아시아공원에서 주님의교회 어와나 저니 부서가 야외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와 트럭’이라는 제목으로 2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전시하기까지 모든 기획은 어와나 저니에 속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일에는 주님의교회 어와나 트랙, 어와나 저니, 중등부, 고등부의 가족들이 방문하였으며, 잠실 아시아공원을 산책하던 많은 시민분들도 오고 가며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어와나 저니는 제자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도 하지만, ‘상호작용’이라는 시간에 책상 위가 아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동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하여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던 이우진 학생과 어와나에 속한 친구들,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림 전시회 개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권유에 승낙한 이우진 학생이 있었고 모두 모여 힘을 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동생,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시회의 ‘전’자도 모르는 모두였지만 그동안 가보았던 전시회들을 상상해보며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 구성이 필요할지, 디자인이 필요할지 등등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시작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회의 끝에 하나의 기획서가 작성되었고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기까지 날씨가 갑자기 변동되는 어려움과 전시회를 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 자체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공동체 일원이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손에서 계획되고 시작된 전시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야외 그림 전시회를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야외 그림 전시회가 열리던 날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숫자가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품마다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림 속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림을 통해 바라본 작가의 삶과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자 애쓰던 사람들로 인하여 전시회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 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에 자신의 <삶>을 전시한 작가 이우진 학생의 그림 전시회는 이를 함께 준비한 모든 공동체 일원과 당일 전시회를 보러온 모두에게 그 시간, 그 공간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백양선 전도사 / 어와나

교사일기
유소년부 초등2부

꼬마 천사들

저는 초등2부 교사 조성영 집사입니다. 저희 반 꼬마 천사들을 소개해볼게요.

예지는 만들기를 할 때 재료가 모자라면 자기 것 나누어주고 새로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하면 새 친구와 눈인사하며 끄덕여 주는 천사예요. 수현이는 남자친구들이 떠들거나 장난칠 때 저를 돕는 보조교사 천사고요. 승주는 공과 시간에 질문할 때 순발력이 좋은 천사예요.

다혜는 코로나 끝나고 나오게 되어 반 친구들이랑 서로 잘 몰랐을 때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배실에서 공과실로 옮길 때 남자친구들이 공과실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냥 갈 뻔한 적이 있는데, 제가 1층으로 다혜를 데리러 가서 결국엔 함께 공과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다혜는 마음이 예뻐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하는 천사예요.

규민이는 만화 파워 성경을 읽어서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천사고요. 서준이는 성경을 빠르게 잘 찾고 설교 내용을 잘 요약해주는 똑똑한 천사예요. 현진이는 사회 약자에 대해 질문했을 때 네이버를 바로 검색해서 답을 찾아줄 만큼 공과 시간에 적극적이에요. 어느 날은 퀴즈를 가장 빨리 푸는 사람에게 기도를 면제해 준다고 했더니, 최선의 집중력으로 현진이가 1등을 했어요. 그만큼 현진이는 승부욕이 있는 천사예요.

현성이는 아빠랑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훌륭하게 잘해요. 지난여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무사히 학교를 잘 다녀와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할 정도로 신앙이 놀라운 천사예요. 예준이는 찬양과 율동을 잘하는 천사고요. 서희는 지난주 온 새 친구인데 잘 따르고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예쁜 천사예요.

초등부 교사가 되시면 꼬마 천사들을 매 주일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으세요.

조성영 집사 / 초등 2부

겨자씨 이야기
2교구 좋은겨자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맺어주신 2교구 좋은 겨자씨를 소개합니다.

저희 겨자씨는 대치동 쌍용과 우성1차아파트에 사는 교우들로 구성되어 거의 20년 정도 오랜 기간 좋은 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름 그대로 좋은 겨자씨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조별길 장로님을 중심으로 늘 베풀어 주시는 박정은 권사님, 호스피스 봉사활동과 성찬부를 섬기시며 큰 누님과 같은 박혜진 권사님과 큰 형님 박방언 집사님, 역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왕명숙 권사님과 꿈꾸는 3막 교육을 받으시는 유영석 집사님, 고등부를 섬기시는 김성경 집사님과 항상 깊은 지식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정희전 집사님, 전원생활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아가시는 탁희주 집사님과 늘 유머로 웃음과 기쁨 주시는 문재우 집사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는 겨자씨 인도자 저와 안내부로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안 지기 김선희 집사가 주요 구성원입니다.

자녀들 학업을 걱정하던 학부모로 만나서 입시, 진로, 취업, 결혼 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어느덧 어느 권사님은 자녀들의 결혼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또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은 손주의 재롱과 귀여움에 큰 기쁨을 얻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시지만 코로나 덕분에(?)에 오히려 Duo 앱을 통하여 매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각 가정에서 현장 모임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각자의 위치에서 비대면 모임과 1~2개월에 한 번씩 식사 교제를 통한 현장 모임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욱 참석률도 높고, 집중해서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고난 가운데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어 더욱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한가지 겨자씨 모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치유의 은혜를 교우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같은 겨자씨로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게 된 신실하신 권사님 부부로부터 남편 집사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서로 겨자씨 원들끼리 합의를 한 것은 없지만 어떤 권사님 부부는 식사 대접으로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다른 집사님 부부는 죽과 반찬을 만들어 집으로 갖다 드리며 더욱 힘을 보태고 매주 겨자씨 모임에서 합심으로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전이 되었던 부위의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 모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쾌되신 것은 아니라 완전히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

랑하시어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어 더욱 굳건한 믿음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겨자씨 원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꿈꾸며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은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좋은 겨자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임익수 장로 / 2교구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신명기편

이번 호에는 <신명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58호 민수기편 정답

시				갈		나	실	인
므	낫	세		암	미	나	답	도
온		겔		미		손		
	드			삿			지	도
르	우	벤		대	속		성	색
	엘		구	전			물	
수		이	스	할		기		
송		스				슬	루	미
아	히	라				론		엘
지		엘	르	아	살		브	다
							솔	

가로 힌트

-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낮은 골짜기 지대. 성경에서는 요단 계곡까지를 말한다. (신 3:17)
- 요단 강 하류 동쪽 25km 지점 고원에 있었던 성읍. 구약 시대에는 아모리의 왕 시혼의 도읍지였는데 모압에게 빼앗겼다. (신 1:4)
- 롯의 맏딸과 롯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후손들이 족속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섬겼다. (신 23:3)
- 요단 강 동쪽의 땅. 물이 풍부하고 목초가 많아 양 치기에 좋았으며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많았다. (신 3:10)
- 르우벤 지파 사람으로 아비람과 다단의 아버지. 아비람과 다단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 (신 11:6)
-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신 16:16)
-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뜻이다. 120세까지 살았다. (신 34:7)
- 히브리어로 '살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며, 원래의 뜻은 '완전함, 하나됨, 충만함'이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미친 상태를 말한다. (신 2:26)
-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번째 날을 이날로 삼으셨다. (신 5: 12)
- "포도원을 만들고 그 ○○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을 먹을까 하노라"(신 20:6)
-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 레위 자손이며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고 나답과 아비후를 낳았다. 동생의 대변인이었다. (신 32:50)
-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0000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신 14:9)
-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원래 이름은 '호세아'이다. 모세의 후계자였다. (신 1:38)
- 롯의 둘째 딸과 롯 사이에서 낳은 아들. 후에 족속을 이루었고 압북 강가와 산지에 살았다. (신 2:19)
- 길르앗과 헬몬 산 중간 지대에 있는 비옥한 땅.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신 2:26)
- 모압의 우상신의 이름. 싯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 우상신에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받았다. (신 4:3)

세로 힌트

- 가나안 족속 중 한 종족. 산지에 살았으며 기원전 3세기 후반에서 2세기 중반에 걸쳐 큰 왕국을 이루었다. (신 1:7)
- 레바논 산 동쪽에 있는 산.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이 살았다. (신 3:8)
-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감사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신 16:13)
- 장미목 뽕나무과에 속하며 꽃이 피지 않고 열리는 열매. 사실은 안쪽에 달려 있는 수많은 작은 꽃을 꽃받침이 덮고 있는 것이다. (신 8:8)
- 사해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 나중에 이름이 '에돔'으로 바뀌었다. 물건을 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다. (신 8:8)
- "어린 ○○○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로 유명한 동물. 도대체 왜 뜨거운 부뚜막에 앉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신 9:16)
-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야훼'라고도 한다. (신 1:3)
-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딸. 모세의 누나이다. (신 24:9)
- '목이 길다'는 뜻을 가진 키가 크고 강한 족속.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 헤브론에 살았다. (신 2:10)
- 압북 강 상류 지역. 갓 지파와 경계를 이루며 '큰 성읍'이라는 뜻이었다. (신 3:11)
- 요단 평지에 있던 도시. 원래 이름은 '벨라'이며 모압의 성읍이었다. (신 34:3)
- 땅 밑 세계, 또는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 성경에서는 보통 '음부'라고 번역된다. (신 32:22)

교회사용설명서⑦

세례와 입교 알아보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교인의 구분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에는 교인을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입교인’이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하고,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입교인)의 2세 미만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세례교인은 7~12세의 아동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례교인(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 15세 이상이 되어 입교한 사람, 또는 15세 이상의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교회의 의식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다’에서 기원했으며,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죄인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신앙의 근본으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세례에 대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얻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물에 잠기지 않아도 되고, 복음의 사역자가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집행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세례는 아직 스스로의 판단이 없는 유아가 부모의 뜻에 의해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세례를 받은 교인일 때 가능합니다. 유아도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동세례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어린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입교의 의미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15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신앙고백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교회는 입교인에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며, 교회의 조직과 회의에 주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하여 구분합니다. ‘원입교인’은 교회의 조직에 참여할 수 없고,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서는 세례, 입교, 아동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는 연 2회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시 입교세례예식이 진행되며 이를 위한 세례교육은 4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세례 대상은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로서 만 15세 이상 된 분들입니다. 입교대상은 유아세례 또는 영세 받은 후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 된 분들입니다. 유아세례는 연 2회 어린이주일과 성탄절에 진행되며 이를 위한 교육은 2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자녀입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세례는 교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세례를 받은 교인, 즉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의 입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귀한 성례이며, 어떤 사람이든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함글함글



교회소식

헌혈은 사랑입니다

• **일정** | 11.20(주일)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 교회 로비 앞 주차장(헌혈 버스)

• **버스 대수** | 40명당 1대

• **기타**

- 헌혈 가능나이 만 16~64세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주일 지나야 헌혈 가능(미접종자 무관)
- 코로나 감염자는 격리 해제후 10일 지나야 헌혈 가능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항히스타민제는 당일 먹 드셔도 됩니다. (아스피린, 감기약 3일, 항생제 7일 후 가능)

• **주관** | 남덕선교회 연합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사랑의 장기기증 및 후원 안내

사후 장기(안구)기증

각각은 눈동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인체조직으로 연구를 보호하고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기증은 각각 외상이나 세균감염 등으로 각각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기증자의 건강한 각각을 이식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일로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합니다.

✓ 사후(사망) 12시간 이내만 기증할 수 있음

✓ 사망 당시 간염,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이 없다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음 (성후 6개월~80세)

✓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술이나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기증이 없었지만 각각 주변부인 각막 윤부나 공막(흰자지)을 기증할 수 있고 의학 연구 등에 기증을 할 수 있음

뇌사 시 장기기증

뇌사란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면 일정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수일 내지 길어야 2주안에 실종이 정지됩니다. 이때 가족의 소중한 결정으로 장기를 기증하면 신장 2개, 폐 2개, 심장, 간, 췌장, 각각 2개 등 9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구분	뇌사 상태	식물인간 상태
순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기능장애	심박동 외 모든 기능정지	기능, 사고 등 대뇌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직 없는 의인의 움직임 가능
자발호흡	불가능	가능
경색상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 주 내에 사망자로 사망함	회복 가능성이 있고,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도 생존할 수 있음
기증여부	장기기증 가능	장기기증 불가능

인체조직 기증

인체조직은 피부, 뼈, 인대, 혈관, 신경, 심장판막 등을 말하며 인체조직 기증은 시각장애, 화상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현재 인체조직 기증자의 수가 부족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이식재의 8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면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채취, 가공 및 보관 과정을 거친 후 이식제로 사용

✓ 사망 당시 간염, 에이즈, 폐렴, 치매 등의 질환이 없다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음

생존 시 신장기증

생존 시 신장기증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두 개 중 한 개의 신장을 기증하거나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대가 없이 신장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장기증 등록을 하면 상담을 거쳐 3~4차례 검사를 받게 되고 이후 이식받을 환자가 결정되면 신장기증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생명나눔 후원 안내

우리의 삶에 찾아온 행복한 선물, 생명나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건강한 내일을 꿈꾸며 행복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나눠주세요.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참여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장기기증 홍보 및 교육, 수술비 지원과 제2리라의 집 운영, 장기기증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에 사용됩니다.

• 후원 계좌 | 후원신청서 작성 후, 후원 확인 / 계좌 발송
• 후원 계좌 | 1588-1588(내선 3번) 1* 카카오톡: 사랑의장기기증
• 후원 계좌 | 국민 42101-94-200872 | 신한 140-001-477112
• 후원 계좌 | (계좌) : 사랑의장기기증(윤승복)
• ARS 후원 | 060-700-0123(반 통화 3000원)
후원금이 바로가기

교회일정

11/13(주일)	정기당회, 선교약정결연
11/25-26(금-토)	피택자 수련회
11/30(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2학기 종강
12/4(주일)	임직식

알립니다

-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 안내**
일시 : 11/16, 23, 30 (총 3회) 오후 7:20
장소 : 대예배실
주제 :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설교 : 윤경수 목사
- 수능일 연합 기도회(주님의교회, 하늘비전교회)**
일시 : 11/17(목) 오전 8:30부터
장소 : 하늘비전교회
진행 : 현장과 유튜브(하늘비전교회 채널) 실시간 병행
문의 : 최혜원 목사(010.4405.8580)

- 주방봉사 봉사자 모집**
주일 주방재개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주방 봉사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무경험자도 가능).
① 국물 재료 준비팀 (08:00~10:00)
② 셋업 및 국수 조리 1팀 (08:00~10:30)
③ 국수 조리 2팀 (10:00~12:30)
④ 봉사(배식, 흘, 설거지) 1팀 (10:00~12:00)
⑤ 봉사(배식, 흘, 설거지) 2팀 (12:00~13:30)
⑥ 마무리팀 (13:00~14:00)
문의 : 김낙균 장로(010.3435.2254)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알립니다

2023 함글함글 신춘문예 공모

함글함글에서 제3회 함글함글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가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괴력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인적재해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걸쳐 충격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하더라도 그 쓰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철학이 빈곤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주님 뜻에 반하여 전쟁 참여를 부추기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외신 소식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을 통해서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 삶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유는 언어로 이루어지며, 언어로 전달됩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덕목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글함글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공모 부문

- 시 : 3편 이상
- 수필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 간증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접수 마감

- 2022년 12월 15일 24:00

보낼 곳

- pclhamletter@naver.com
- 메일 제목에 <함글함글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각 부문 별 최소 응모 편수 이상을 보내주셔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3년 함글함글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